



무등야구장 내야 지장좌석제

자리걱정 없이 차분한 관람 팬들은 '굿'



무등경기장 야구장의 내야 지장좌석제 시행으로 1루 관중석이 차분하게 야구를 관람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최현해기자 choi@kwangju.co.kr

인터넷 예매 8000장 매진... 티켓 발권기 부족 불만도

KIA 타이거즈는 지난 7일 두산 베어스와의 홈경기에서부터 내야 지장 좌석제를 시행하고 있다. 입장료는 기존과 같지만 자리 정렬전을 받지 않고 차분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팬들의 반응이 좋다. 인터넷 예매가 활발해지면서 내야 지장 좌석제 시행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주 삼성과의 주말 3연전 내야 지장 좌석제 시행도 8000장이 매진이 됐다. 기존 지장석과 달리 응원 열기를 느끼면서 야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1루 지장석의 인기가 뜨거웠다. 팬들은 '예전에는 여러 자리를 선점해놓은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 없이 원하는 자리에서 야구를 볼 수 있다', '인기 경기는 현

장에서 표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미리 표를 예매해둘 수 있어서 좋다', '일이 끝나고 자리 걱정없이 차분하게 경기장을 찾아 야구를 즐기수 있다'며 내야 지장좌석에 좋은 반응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지장석이 확대 시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예매표를 발급할 수 있는 티켓 발권기가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불만이다. '예약표도 없는데 티켓을 발급해달라'는 불만도 있었다. 인터넷 상으로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표는 최대 9장, 1

루 먼저 관중석에 들어차지만 좌석제 시행 이후에는 3루가 먼저 북적거린다. 1루 좌석을 예매한 팬들이 느긋하게 경기장을 찾기 때문이다. 김주일 응원 단장은 "좌석제 시행이후 1루 분위기가 많이 차분해졌다. 예전에는 응원 도구들을 챙겨오는 팬들이 1루 쪽을 많이 찾았었는데 예매를 통해 일 끝나고 바로 경기장을 찾은 직장인들이 많아져서 그런 것 같다"며 "그래도 혼잡함 없이 야구들을 즐기고 응원하는 모습이다"고 말했다. KIA는 7월부터는 3루까지 지장좌석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루 먼저 관중석에 들어차지만 좌석제 시행 이후에는 3루가 먼저 북적거린다. 1루 좌석을 예매한 팬들이 느긋하게 경기장을 찾기 때문이다. 김주일 응원 단장은 "좌석제 시행이후 1루 분위기가 많이 차분해졌다. 예전에는 응원 도구들을 챙겨오는 팬들이 1루 쪽을 많이 찾았었는데 예매를 통해 일 끝나고 바로 경기장을 찾은 직장인들이 많아져서 그런 것 같다"며 "그래도 혼잡함 없이 야구들을 즐기고 응원하는 모습이다"고 말했다. KIA는 7월부터는 3루까지 지장좌석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3〉 92시즌 롯데 V2

1992시즌은 부산 갈매기가 8년 만에 다시 해운대로 날아든 한 해였다. 롯데 자이언츠는 1984년 38세의 나이로 첫 우승을 이끈 바 있었던 강병철 감독을 재임용해 대대적인 팀 체질을 개선했다. 그 효과는 수확기인 가을에 나타났다. 팀 재편은 근성있는 영맹들을 최전선에 포진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신인급 박정태·전준호·박계원·공필성 등을 적용한 것이 주효했다. 여기에 에이스 윤학길 외에 결혼한 신인 염종석이 가세한데다 김민호·김응국·이종운·박정태·전준호 등 5명의 3할대 타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지는가에 조짐이 맞추어진 가운데 치러졌다. 한국시리즈 1차전에서 롯데는 상순세를 앞세워 빙그레 에이스 손진우를 초반에 쫓아내고, '자갈치' 김민호와 '염종이'는 화약고 공필성의 팽타로 8-6으로 승리했다. 2차전에서는 8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하던 정민평을 강판시키고 전발 2번타로 나서 초반 강판 당하며 패배가 되었던 손진우를 구원 등장시킨 김경덕감독의 패착 속에 연습생선수의 주역 윤형배의 깜짝 호투가 더해지면서 3-2로 신승했다.

펜트레이스 3위, 삼성·해태·빙그레 꺾고 '하극상의 쿠데타' 근성야구로 8년만에 V2

자들이 취약한 마운드를 보강하고도 남을 대활약을 펼쳤다. 또한 민재영사장 중심의 프런트가 초현대식 웨이트 트레이닝장과 클럽하우스를 개설해 선수단의 사기를 높여 준공로도 간과할 수 없다. 펜트레이스 3위 롯데는 4위인 삼성 라이온즈와 썬플레이오프를 치렀다. 썬플레이오프 1차전서는 성준과 치열한 완투 대결을 펼친 롯데 고졸 신인 염종석이 5피안타 무실점으로 3-0 완봉승을 거두었다. 2차전서는 '달구벌 정복자' 박동희가 5피안타 4-0 완봉승을 거두며 2전 전승으로 플레이오프전에 진출했다. 썬플레이오프 승자인 롯데는 1차전 라이벌 2위 해태와 플레이오프전을 치렀다. 롯데는 플레이오프전 전전도 챔피언이자 또 다시 연패를 노리던 강적 해태와 5차전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을 펼친 끝에 3승2패로 대망의 한국시리즈에 진출했다. 플레이오프전 승자인 롯데와 1위 빙그레 이글스 간의 한국시리즈는 롯데의

3차전에서는 호투하던 선발 윤학길이 9회에 2실점하며 갑작스럽게 무너져 4-5로 역전패했다. 4차전에서는 5타수안타를 기록한 조성욱의 팽타와 함께 모든 득점을 2사후에 성공시키는 짜릿한 상황을 연출하면서 6-5로 신승을 거두었다. 롯데는 5차전에서 박동희를 앞세워 빙그레 4-2로 꺾고 고봉투를 갈무리했다. 신생팀이면서부터 걸친 결혼한 슈퍼스타급의 선수들을 보유하고 필름을 일으켰던 빙그레 이글스는 1988년~1989~1991년에는 해태에게, 1992년에는 롯데에게 한국시리즈에서 패하는 불운을 겪으면서 최악의 길로 접어들었다. 롯데는 근성의 야구로 '하극상의 쿠데타'로서 패권을 차지하면서 V2를 달성했다.

김재요 <조선이공대 교수 한국야구기독교회장>

플레이오프전 승자인 롯데와 1위 빙그레 이글스 간의 한국시리즈는 롯데의

엔씨소프트, 신인 최대 17명까지 지명

프로야구 제9구단인 엔씨소프트가 2012-2013 신인드래프트에서 최대 17명을 뽑을 수 있다. 2013년 외국인선수 4명 등록, 3명 출전 조항도 적용받는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1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8개 구단 사장과 이태일 엔씨소프트 대표가 참석한 이사회를 열고 지난 3월 실행위원회에서 결정한 신생구단 지원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결정에 따라 엔씨소프트는 우선 지명 두 명과 2라운드 지명 후 5명 특별지명 등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최대 17명을 선발할 수 있다. 올해 신인 드래프트는 8월25일 열린다.

또 2013년 1군 진입을 목표로하고 있는 엔씨소프트는 내년 시즌이 끝난 후 구단 보호 선수 20명 외 1명씩을 영입할 수 있고, 2014년까지 자유계약선수(F.A)계약으로 3명을 영입할 수 있다. 외국인선수의 경우에도 4명 등록, 3명 출전이 가능하다. 8개 구단은 선수 제공 대가로 2013년도부터 외국인 선수를 현재 2명에서 3명으로 늘려 등록하고, 2명을 출전시킬 수 있다. 엔씨소프트는 2년에 한차례씩 2군 유망주를 대상으로 하는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도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백전노장' 잭 맥키언, 플로리다 사령탑 복귀

'백전노장' 잭 맥키언 감독이 미국프로야구 플로리다 말린스의 지휘봉을 잡고 현역에 복귀했다. 플로리다 구단은 21일 성적 부진으로 사임한 에드윈 로드리게스 감독의 후임으로 맥키언 감독을 임시 감독에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1930년생으로 올해 81세인 맥키언 감독은 구단주이자 감독이었던 전설적인 명장 코니 맥에 이어 메이저리그 사상 두 번째 최고령 감독이 됐다. 1901년부터 필라델피아 필리스를 50년 동안 지휘했던 맥 감독은 1950년 은퇴할 당시

나이가 88세였다. 최근 10년대를 하는 등 이따금에 1승1패로 최악의 성적 플로리다는 전성기를 이룩했던 맥키언 감독에게 재건의 책임을 맡겼다. 2003년부터 3년간 플로리다를 지휘한 맥키언 감독은 부인 친척 팀에 월드시리즈 우승급을 안겼고, 3년 내내 슬럼프 5할 이상을 올렸다. 맥키언 감독은 취임 일성으로 "목표는 포스트시즌 진출이다. 선수들에게 슬럼프 5할로 올라서라고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나이가 88세였다. 최근 10년대를 하는 등 이따금에 1승1패로 최악의 성적 플로리다는 전성기를 이룩했던 맥키언 감독에게 재건의 책임을 맡겼다. 2003년부터 3년간 플로리다를 지휘한 맥키언 감독은 부인 친척 팀에 월드시리즈 우승급을 안겼고, 3년 내내 슬럼프 5할 이상을 올렸다. 맥키언 감독은 취임 일성으로 "목표는 포스트시즌 진출이다. 선수들에게 슬럼프 5할로 올라서라고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산행안내 6월23일(목) ▲광주한국산악회... 6월24일(금) ▲광주칠도산악회... 6월25일(토) ▲빛고을테마산행...

무안 전원 주택지 매매 바다 해변 조망 전망 좋은 곳 광주 50분 무안에서 증도방향 전 2,300평 1억 9천5백 연락처 010-2617-1903

신축맨션 분양 두암동 두암초교 후문앞 22평형 ▶ 8,300만원 32평형 ▶ 1억2,000만원 생활환경 쾌적, 등산로 인접 상담전화 010-4670-9849

광주 7월7일(목) 7시50분 광주한국산악회... 7월8일(금) ▲광주칠도산악회... 7월9일(토) ▲광주한국산악회... 7월10일(일) ▲광주한국산악회... 7월11일(월) ▲광주한국산악회... 7월12일(화) ▲광주한국산악회... 7월13일(수) ▲광주칠도산악회... 7월14일(목) ▲광주칠도산악회... 7월15일(금) ▲광주칠도산악회... 7월16일(토) ▲빛고을무지개산악회... 7월17일(일) ▲광주칠도산악회... 7월18일(월) ▲광주칠도산악회... 7월19일(화) ▲광주칠도산악회... 7월20일(수) ▲광주칠도산악회... 7월21일(목) ▲광주칠도산악회... 7월22일(금) ▲광주칠도산악회... 7월23일(토) ▲광주칠도산악회... 7월24일(일) ▲광주칠도산악회... 7월25일(월) ▲광주칠도산악회...

판결공시 제1심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1.6.14... 신주 발행 공고 2011년 6월 22일 판사이사회에서 신주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독자와 함께 하는 광주일보 지사·지국 전화번호 안내 목포지사 061)276-9200 여수지사 061)653-8444 순천지사 061)746-8111 광양지사 061)792-8111 나주시사 061)336-4759 나주지사 061)336-4759 강진지사 061)434-6830 고흥지사 061)842-2121 곡성지사 061)362-8111 구례지사 061)783-8111 담양지사 061)383-8116 무안지사 061)452-8535 보성지사 061)853-1190 벌교지사 061)857-0686 해남지사 061)537-6767 회진지사 061)374-4423 남악지국 062)225-6001 광산지사 062)944-0444 남원지사 063)633-9911 부안지사 063)214-6113 순창지사 063)653-0444 익산지사 063)835-3133 임실지사 063)653-0702 전주지사 063)214-6113 정읍지사 063)531-5544 광천지국 062)366-8375 남광지국 062)222-9440 남부지국 062)652-0175 동광지국 062)264-2012 동명지국 062)222-9054 동부지국 062)225-6001 문흥지국 062)267-4748 백운지국 062)673-4698 동진지국 062)675-5530 북광지국 062)525-3761 삼부지국 062)372-2352 서광지국 062)369-0583 신안지국 062)512-1732 양산지국 062)571-7658 오치지국 062)266-7601 용봉지국 062)522-7752 우산지국 062)512-8116 온천지국 062)371-9818 월곡지국 062)961-2339 중앙지국 062)222-1896 충흥지국 062)224-6604 진월지국 062)673-1600 진단지국 062)973-2900 충창지국 062)224-8212 치령지국 062)376-6511 풍암지국 062)682-8112 하남지국 062)959-1500 화정지국 062)375-9662 서울부급소 02) 313-5962